

국어 數詞體系의 一考察

金 星 奎*

I. 序 論

19C 초 인구어족의 수립에 큰 기여를 한 數詞의 一致라는 문제는 알타이어족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하나의 장벽 역할을 해 왔다. 인구어족에서는 수사의 일치가 音韻對應에 의해 잘 설명되고 있지만 알타이 제어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알타이 제어가 分裂 이후 數詞에 있어서 큰 변화를 입는데 그 원인이 있고, 인구어족에 나타나는 수사의 일치가 오히려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보았던 것이 매우 타당한 견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도에서 수사에 대한 연구가 끝날 수 없는 것이다. 즉, 그러한 不一致 속에서도 國語의 數詞와 알타이 제어의 수사 사이에서 어떤 연관성을 찾으려는 노력은 계속 되어 왔다.

국어와 알타이 제어의 수사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 단계로 國語의 數詞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수사에 관한 연구를 살펴 보면, 이것보다는 비교라는 문제가 더 앞서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국어의 수사 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언어의 수사 체계와 비교를 하게 되면 그 論議는 공허해질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Ramstedt는 '다섯'을 '다—섯'으로 분석하고 '다—'는 '닫—(閉)—'과 같은 요소이고 '—섯'은 '손(手)'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국어국문학과 4년

또한 ‘일곱’은 ‘닐—’과 ‘—곱’으로 분석하여 ‘손가락 셋을 구부린다’는 뜻을 가진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韓國語에 대한 Ramstedt의 지식이 부족한데서 온 결과로 보인다. ‘다—셋’, ‘닐—곱’으로 분석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닷—엇’, ‘닐고—다’으로 분석하는 것이 옳을 듯하기 때문이다. (II章 참조)

국어에 대한 Ramstedt의 이러한 실수는 우리가 알타이 제어의 수사를 비교할 때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어의 수사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 알타이 어족 각 언어의 수사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렇게 비교 대상이 되는 數詞들이 분석됐을 때, 거기서 분석되어 나오는 형태소들의 비교가 알타이 제어와 국어의 수사 체계 연구에 어떤 빛을 던져 줄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研究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찌기 洪起文(1934)는 數詞의 비교 방법으로 單語形態의 비교, 構成形態의 비교, 換位形態의 비교, 連位形態의 비교를 설정하였는데 Ramstedt와 같은 식의 비교를 단어형태의 비교 방식이라고 한다면 宋基中(1984)의 논의는 바로 환위 형태의 비교 방법을 택한 색다른 연구라 하겠다. 그러나 여기서도 각 언어의 수사 체계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은 두말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本考는 이러한 관점에서 그 논의의 대상을 國語의 數詞 體系로 한정시켰다. 이것은 알타이 제어에 대한 이해가 없는 데서 오는 당연한 귀결이겠지만 결국 그 비교를 위한 첫 걸음임은 부인할 수 없다.

II. 國語 수사 체계의 분석

2.1 자 료

國語의 수사 체계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최우선의 자료가 되는 것은

中世 國語의 數詞 體系로, 이것은 現代國語의 수사 체계와 거의 大同小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료에는 訓民正音으로 적힌 자료 외에도 雜林類事, 朝鮮館譯語등의 중국측 자료와 二重歷, 和漢三才圖會 등의 자료도 첨가될 수 있을 것이다. 本考에서는 이러한 자료들 중에서 後期 中世國語의 訓民正音으로 적힌 자료들에 나타나는 수사 체계를 주요 논점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방언에 나타나는 자료이다. 方言에 따라서는 가축의 나이를 셀 때 특이한 수사의 형태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제주도에서는 소의 나이를 셀 때 A-①과 같은 체계를 보여 주는데, 이것이 바로 本考에서 수사를 분석할 수 있게 해 주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A-① 제주도 소의 연령>

연령

- 1 …금승
- 2 …다간
- 3 …사름
- 4 …나름
- 5 …다습
- 6 …여습
- 7 …일곱
- 8 …여덟
- 9 …아홉

(李崇寧, 1978)

여기서 ‘금승’은 ‘금승’으로 해석되며 ‘다간’은 몽고어의 *dayayan*과 일치됨을 보여주고 있는데 차용어라고 할 수 있다. 이 *dayayan*은 ‘두살 된 말’을 뜻하는 어휘인데 ‘다간’은 ‘소’를 나타내는 것이 특이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다습’과 같은 형태는 中世國語에서도 발견된다. (결다 악대뿔 혼필이 나히 다습이오; 老解下 14)

이러한 A-①과 비교를 위해 후기 중세 국어의 수사 체계를 보이면

다음의 B-①과 같다.

B-① <후기 중세 국어 수사 체계>

하냥	옴
툼	스름
셈	설흔
뵈	마순
다섯	썸
여섯	여흔
닐곱	닐흔
여덟	여든
아홉	아흔

그런데 이러한 자료들은 고구려어에 나타나는 몇몇 수사와 매우 相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문제는 國語史의 전반적인 관점에서 韓國語의 형성 문제와 관련시켜 고찰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고구려어의 수사 체계는 현재 단절된 체계이므로 지금의 단계에서는 논의에서 제외시키기로 한다.

2.2 중세국어 수사체계의 분석

제주도 방언의 소의 나이를 나타내 주는 A-①의 체계를 살펴 보면 세살부터 아홉살까지의 어휘들이 모두 ‘ㅂ’으로 끝남을 알 수 있고, 이러한 ‘ㅂ’이 B-①의 수사 체계 ‘닐곱, 여덟, 아홉’에 보이는 ‘ㅂ’과 관련이 있으리라는 가정은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실록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A-①의 체계 자체 안에서 ‘-ㅂ’을 접미된 형태로 보아 떼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A-①에서 ‘-ㅂ’을 분리했을 때 나타나는 체계는 다음의 A-②와 같다.

- A-② 1 (금승)
 2 (다간)
 3 *살-
 4 *날-

- 5 *닷-
- 6 *옛-
- 7 *일고-
- 8 *여더(르)-
- 9 *아호-

이러한 A-②의 ‘닷-’과 ‘옛-’에 의해 B-①의 ‘다숫’과 ‘여숫’을 ‘닷-숫’과 ‘옛-숫’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A-②의 ‘일고-, 여덜-, 아호-’에 의해 B-①의 ‘닐굽, 여들, 아흙’은 ‘닐구-뎌, 여들-뎌, 아호-뎌’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10單位를 나타내는 환위수는 종래에는 ‘훈/혼’이 접미되었다고 보아 만주·여진어와 비교되었는데 이것은 ‘닐굽, 아흙’ 등을 ‘닐-굽, 아-흙’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닐혼, 아훈’을 ‘닐-혼, 아-훈’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데서 나온 결과였다. 그러나 本考에서는 ‘닐혼’의 ‘ㅎ’과 ‘닐구’의 ‘ㄱ’을 서로 같은 요소로 취급하고자 한다. 그리고 ‘아흙, 아훈’의 ‘ㅎ’도 마찬가지로 같은 요소로 해석된다. 이렇게 볼 때 10單位를 나타내기 위해 접미되는 형태는 결국 ‘훈/혼’이 아니라 ‘은/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은/은’을 ‘설혼’에서 분리 시키면 “*설-”이 남는데, 이것과 ‘셀’ 그리고 ‘A-②의 살-’의 관계에서 3의 재구형을 “*서탕’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4 역시 ‘뵙’와 ‘A-②의 날-’의 관계에서 “*너탕’로 재구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Ⅲ章에서 별도로 論하기로 한다.)

이러한 몇가지 생각을 갖고 B-①을 분석한 것을 보이면 다음의 B-②와 같다.

- | | | | | |
|-----|----------|------|-----------|------|
| B-② | 3 *서탕 | > 셀 | 30 *서탕+*은 | > 설혼 |
| | 4 *너탕 | > 뵙 | 40 *닷+*은 | > 마순 |
| | 5 *닷+*숫 | > 다숫 | 50 *쉬+*은 | > 쉰 |
| | 6 *옛+*숫 | > 여숫 | 60 *옛+*은 | > 여현 |
| | 7 *닐구+*뎌 | > 닐굽 | 70 *닐+*은 | > 닐혼 |

8 *여들+*니 > 여들	80 *열+*은 > 여든
9 *아호+*니 > 아홉	90 *양+*은 > 아홉

이중에서 ‘여선’의 ‘-선’은 50의 ‘선’에 의한 유추로 보이며 ‘닐구’와 ‘닐’, ‘여들’과 ‘열’, ‘아호’와 ‘양’의 사이에 보이는 축약관계에 대해서는 IV章에서 따로 다루기로 한다. 또한 ‘여덟’은 *yAltarp에 소급하는 것이므로(이기문, 1972a) ‘여든’도 *yAlt+*An에 소급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方言에 따라서는 ‘아홉’ 대신 ‘아곱’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과 ‘닐곱, 닐혼’에 나타나는 ‘ㄱ:ㅎ’의 문제는 그 자체가 국어사에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과제이므로 本考에서는 아직 다루지 못하였으며, ‘마순, 선’의 基本數라고 할 수 있는 ‘*맛’과 ‘*쉬’는 확인할 길이 없다.

2.3 基本數와 換位數와의 관계

B-②의 체계를 살펴볼 때 환위수는 기본수에 ‘은/은’이 결합되어 성립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에 위배되는 예들도 다수 발견된다. 즉 ‘*서랑’과 ‘설혼’의 관계가 ‘*너랑’과 ‘마순’의 관계와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마순’의 위치에 ‘닐혼’과 같은 數詞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렇게 기본수와 환위수가 관련을 보이지 않는 것은 비단 여기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다섯’과 ‘선’, ‘둠’과 ‘스뽀’의 사이에서도 서로 관련성을 보여 주지 않고 있다.

물론 기본수와 환위수가 꼭 어원적으로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에 관해 宋基中(1984)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國語와 튀르크諸語와 滿洲·몽그스諸語의 數詞 體系에서 20, 30, 40, 50은 2, 3, 4, 5와 독립적으로 형성된 어휘일 가능성이 높고, 이는 알타이 共通祖語로부터 유래한 또 한 가지 특성일 개연성이 높다. 國語, 오르콘튀르크語, 추바쉬語에서 각각 3과 30의 語頭子音이 동일하거나 비교 가능한 유사성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이것도 역시 공통적으로) 그것 때문에 30이 3의 변형이거나, 語

尾가 첨가된 형이라고 속단할 수 없을 듯하다. 20과 40이 2와 4와 관계가 없는데 유독 30만이 3과 관련있는 것으로 추측함이 무리일 듯하고 60~90이 6~9와의 관계에서 보이는 확연한 音節對應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本考는 ‘생’와 ‘설혼’을 서로 독립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지 않고 모두 *‘서링’가 변형된 것으로 해석하는 입장이다. 序論에서 밝혔듯이 이러한 논의를 위해서는 비교되는 各言語에 대한 좀더 정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오르콘 튀르크語와 추바쉬語에서도 3과 30이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해석이 되면 위와 같은 논의는 2와 20, 4와 40 그리고 5와 50의 관계만으로 한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Ⅲ. 3과 4에 대하여

‘생’와 ‘녕’에 대해 Ⅱ章에서는 각각 *‘서링’와 *‘너링’로 재구 하였다. 이것은 新羅語의 川을 의미하는 단어인 川理(*narih), 世를 의미하는 단어인 世里(*nuri), 山을 뜻하는 단어인 *murih, 그리고 彗星歌의 倭理(*jeri)와 마찬가지로

$r > \phi / V-i$

라는 규칙의 적용을 받은 듯하다(金完鎭, 1971 : 105, 李基文, 1972a : 70).

*narih > nayh(녕)

*nuri > nuy(취)

*murih > moyh(뫼)

*jeri > jei(예)

*serih > *seyh > sayh(생)

*nerih > *neyh > neyh(녕)

그러나 이러한 변화과정만으로는 중세국어 ‘사울’과 ‘나울’의 ‘사’와 ‘나-’ 그리고 ‘사름’과 ‘나름’의 *‘살-’, *‘날-’에 보이는 모음을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을 ‘서’, ‘너’의 모음교체(Ablaut)로 설명하기에는

그 규칙성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serih와 *nerih의 그 이전 단계를 상정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만약 *serih와 *nerih가 *akuri>aküri>aküi(아귀)와 마찬가지로 *i의 역행동화 과정을 밟았다면(김완진, 1971: 74) *sarih, *narih와 같이 재구할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 수사의 축약형인 *sa, *na와 날(日)을 나타내는 *aro이 결합하여 ‘사올’과 ‘나올’이라는 형태를 만들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사름’과 ‘나름’ 역시 이 단계에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음운 변화 과정에 의한 설명과 함께 3과 30은 성조에 있어서 역시 관계가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쌩’의 재구형을 *서랑’로 잡지 않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것이다.

中世 國語의 ‘쌩’은 상성(R)이었으며 ‘설혼’은 평성·거성(LH)으로 나타난다. 古代國語 단계에 성조가 있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누리(평성·거성)>뉘(상성), 나리(평성·거성)>내(상성)’와 마찬가지로(송민, 1977) ‘쌩’도 *서랑(평성·거성)>쌩(상성)’의 과정을 겪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누리>뉘	나리>내
LH R	LH R
*서랑>쌩	*너랑>뵙
LH R	LH R

그리고 ‘설혼’의 *설-은 *서랑(LH)와 비교해 볼 때 *sarih>*syərɨ-의 과정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 去聲은 핵음절로 남아 있지 않아도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김완진, 1972: 31) ‘설혼’의 *설-은 성조의 형태 음소론적 차원에서 l-h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설혼, 마순, 여현, 널혼, 여든, 아훈’의 제 2 음절은 모두 거성이므로 ‘설혼’의 10單位를 나타내는 ‘-’도 거성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서랑+*은>*싫+*은→싫은>설혼
 LH H l-h h lh·h LH

이제 '생'와 '설혼'이 서로 독립적으로 형성되지 않았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가설을 바탕으로 알타이제어와 국어의 기본수와 환위수 관계는 앞으로 좀더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IV. 數詞의 축약형

4.1 축약형과 접미된 형태

축약된 수사 형태가 쓰이는 것은 국어에만 한정된 현상은 아니다. 言語에 따라서는 완형 수사(absolute numeral) 보다 문맥형 수사(contextual numeral)가 긴 형태를 보이기도 하지만 축약된 형태로 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Greenberg, 1978: 286). 여기서는 국어의 數詞 축약형과 관련된 몇가지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표 B-②에서 보듯이 7, 8, 9는 '닐구, 여들, 아호'에 'ㅂ'이 결합되는데 이 '닐구, 여들, 아호'는 10單位를 나타내는 '은/은'과 결합될 때는 '닐-, 연-, 앞-'와 같이 축약형이 쓰이고 있다.

그리고 B-②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수사를 형성하는 방식에 있어서 접미되는 형태에 따라 국어의 수사를 몇가지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국어의 수사는 그 형성 과정상에 있어서 3과 4, 5와 6, 그리고 7, 8, 9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3과 4의 '생'와 '땡'은 '*서랑'와 '*너랑'가 변한 것이고 5와 6은 각각 '닷'과 '엃'에 '으/웃'이 결합되며 7, 8, 9는 '닐구, 여들, 아호'에 'ㅂ'이 결합되었다.

이렇게 3과 4, 5와 6, 그리고 7, 8, 9가 수사를 형성할 때 각 부류별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단지 그 수사들이 이웃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원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는 아직 알 길이 없다.

4.2 日數를 나타내는 단어

數詞에 대해 논의하는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자료로 날수(日數)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들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들은 날(日)을 표시하는 어형인 ‘*을/을’이 결합된 것들과 처격 접미사로 보이는 ‘*—애/에’가 결합된 것들로 兩分된다. (공간개념과 시간개념의 관계에 대해서는 沈在箕; 1982 참조)

C-①은 後期中世國語의 날수를 나타낸 자료인데 C-②와 같이 분석될 수 있다.

C-①	C-②
하르	훈+을
이틀	일+을
사을	사+을
나을	나+을
닷새	닷소+애
엿새	엿소+애
닐웨	닐구+에
여드래	여돌+애
아흐래	아홀+애
열흘	열+을

여기서 보듯이 ‘하르(<*하를), 이틀, 사을, 나을, 열흘’은 ‘—을/을’이라는 접미사가 붙은 것이고(이기문, 1972a: 148) ‘닷새, 엿새, 닐웨, 여드래, 아흐래’는 ‘애/에’가 붙은 것이다.

여기서도 4.1節에서의 마찬가지로 3과 4, 5와 6, 그리고 7, 8, 9가 각각 하나의 부류를 이루고 있다. ‘—을/을’이 붙은 ‘사을’과 ‘나을’은 ‘하르’와 함께, ‘사(<*sarih), 나(<*narih), 훈(<*hatan)’이라는 축약형이 쓰인 것이고 ‘닷새’와 ‘엿새’의 ‘*닷소’와 ‘*엿소’는 어떤 형태인지 해석되지 않는다.

C-②에서 ‘닐웨’를 ‘닐구+에’로 분석하였는데 ‘닐구’의 ‘ㄱ’은 ㄱ

로 소급되어 '닐구>닐우'의 변화 과정을 겪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며, 여기에 처저접미사 '—애/에'가 붙은 것이다. 이 7와 '닐흔'의 'ㅎ'과의 관계를 본고에서는 밝히지 못하였는데, 앞으로 많은 검토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또한 '아ᄏ래'를 C—②에서는 '아ᄏ+애'로 보았지만, 이 '아ᄏ'에 나타나는 '리'에 대해서는 몇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우선 '아ᄏ래'의 '리'을 '여드래'의 '리'에 의한 유추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아ᄏ'의 축약형 '양'에 日을 나타내는 접미사 '을'이 붙고 여기에 다시 '—애'가 붙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여드래' 또한 '여들'의 축약형 '열'에 '을'이 붙고 여기에 다시 '—애'가 붙었다고도 할 수 있는 일관성이 있다. 이것은 '을/을'이 붙는 'ᄏ, 사, 나'가 축약형이라는 것과는 일맥 상통한다. (양+을+애, 열+을+애)

또 한가지 해석 방법은 '아ᄏ' 자체를 하나의 수사 형태로 간주하는 것이다. 사실 강원도 통천 지역등에서 '여섯'에 대해 '여슬'이란 수사가 사용되고 있는데(김형규, 1980) 이것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처리할 때는 7, 8, 9를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위의 어떤 방식을 택하더라도 날수(日數)를 나타내는 단어를 형성할 때 '아ᄏ래'에는 '—애/에'가 접미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다. 즉 'ᄏ르, 이틀, 사을, 나을, 열흘'은 '—을/을(日)'과 결합된 어형이며 '닷새, 엿새(여기에는 아직 문제가 남아 있지만) 닳새, 여드래, 아ᄏ래'는 '—애/에'가 결합된 어형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4.3 數詞의 合成

國語의 數詞는 合成이라는 독특한 형태를 갖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그 예이다. 두성(2·3), 서녕(·34), 너덧(4·6), 대여숫(5·6), 여닐곱(6·7), 널여듭(7·8), 여다홉(8·9), 세다숫(3·5), 세닐곱(3·7), 네닐곱(4·7) 등.

그런데 이렇게 合成된 수사들은 두가지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첫째 부류는 ‘두성, 서녕, 너덧, 대여숫, 여닐곱, 널여듭, 여다홉’ 등과 같이 이웃해 있는 數詞間의 合成이고 또 하나의 부류는 ‘세다숫, 세닐곱’ 등과 같이 떨어져 있는 수사간의 합성이다. 이 중 첫째 부류에서는 ‘서녕, 두성’ 등에서 ‘쌍’와 ‘녕’가 ‘쌍’와 ‘녕’로 사용된 점이 특이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두번째 부류는 ‘삼칠일’을 나타내는 ‘세닐웨’에서 보듯이 곱셈 형식인 듯하다.

해석에 있어서 자료의 부족을 느끼기는 하지만 첫째 부류에서는 合成되는 두 수사중 앞의 수사가 축약형으로 쓰여 ‘두, 서, 너, 대, 여, 널, 연’ 등과 같이 나타나며, 둘째 부류에서는 앞의 수사가 원형을 어느 정도 보존하여 ‘세, 네’와 같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즉, 들성, 세녕, 네덧, 엇닐곱, 널구여듭, 여덜아홉’이나 ‘서다숫, 서닐곱, 너닐곱’ 등과 같은 語形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첫째 부류에서도 앞의 수사가 원래는 축약형으로 쓰이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 ‘두성’ 외에도 ‘두쌍’가 나타나는 데, 여기서 ‘△’은 그 앞의 수사가 원래는 ‘둘’이었음을 알게 해주는 요소이다. 이것은 두 형태소가 결합한 후 나타난 음운 변화로 설명할 수 있는데,

*들성 > *들쌍 > 두성

와 같은 변화과정을 겪은 것이다.

그런데 李考에서는 이렇게 음운 변화후 나타난 축약형 ‘두, 서, 너, 대, 여, 널, 연’이 附加語로 쓰이는 수사 ‘훈, 두, 서, 석, 너, 녀, 대, 닷, 예, 엇’ 등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닐혼, 여든, 아홉’ 등에 나타나는 축약형 ‘닐, 연, 양’ 등과는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또 ‘사

을, 나을' 등에 나타나는 측양형 '사나'와는 어떤 관계인지 명확하게 해 명하지 못하였다. 이것을 단순한 完形數詞(absolute numeral)와 文脈形數詞(contextual numeral)의 길이 차이로만 보기에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V. 結 論

本考는 國語와 알타이諸語의 수사체계를 비교하기 전에 우선 國語 自體의 수사체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앞서야 한다는 하나의 方法論을 확인하기 위해 쓰여졌다. 제주도 방언 자료를 출발점으로 하여 中世國語의 數詞 體系를 분석함으로써 나타난 몇가지 결과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① 中世國語 수사의 '다섯, 여섯'은, '닷-읏, 엇-읏'으로 분석되고 '닐곱, 여덟, 아홉'은 각각 '닐구-ㅂ', '여들-ㅂ', '아호-ㅂ'으로 분석된다.

② 10단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30부터 90까지는 기본수에 '*은/은'이 접미된다.

③ 3과 4는 각각 다음과 같은 변화과정을 겪었다.

*sarih>*serih>*seyh>səyh(쌩)

*narih>*nerih>*neyh>nəyh(녕)

④ '*서팅'의 성조는 LH이고 '설혼'의 '*췌-'은 형태 음소론적 차원에서 l-h라는 성조를 갖는다.

⑤ '닐구, 여들, 아호'는 10단위를 나타내는 '*은/은'과 결합될 때는 '*닐, *연, *양'와 같이 축약된다.

⑥ 3과 4, 5와 6, 그리고 7, 8, 9는 수사를 형성할 때 각각 하나의 부류를 이룬다.

⑦ 日數를 나타내는 형태소에는 '*을/을(日)' 외에도 처격 접미사로

보이는 '*에/애'가 있다.

⑧ 數詞가 合成될 때 '서녕'와 같이 바로 이웃해 있는 數詞間的 합성이면 앞의 수사가 축약되어 쓰이고 '세다섯'과 같이 떨어져 있는 數詞間的 合成이면 앞의 수사는 원형을 어느 정도 보존한다.

참 고 문 헌

- 姜吉云(1979), 韓國語의 形成과 系統, 국어국문학 79·80.
 _____(1980), 數詞의 發達(Ⅰ), 충남대 논문집 VII-1.
 金公七(1980), 「아이누語의 數詞에 대하여」, 延岩玄平孝博士回甲紀念論叢, 螢雪出版社.
 金芳漢(1968), 「국어의 계통 연구에 관하여」, 동아 문화 8,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金芳漢(1983), 韓國語의 系統, 민음사
 金完鎭(1971), 國語音韻體系의 研究, 一潮閣.
 _____(1972), 中世國語 聲調의 研究(1977, 塔出版社).
 金亨奎(1963), 「古末音 體言攷」, 아세아연구 VI-1.
 _____(1980), 韓國方言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宋基中(1984), 「國語와 알타이 諸語」, 세계 속의 한국문화, 정신문화 연구원 학술발표.
 宋 敏(1977), 「韓日兩國語 音韻對應試考」, 國語學論文選 10, 民衆書館.
 沈在箕(1982), 國語 語彙論, 集文堂.
 劉昌惇(1971), 語彙史 研究, 宣明文化社.
 李基文(1972a), 國語史概說(改訂版), 塔出版社.
 _____(1972b), 國語音韻史研究, 한국문화연구소, (1977: 塔出版社).
 李崇寧(1978), 濟州島方言의 形態論의 研究, 塔出版社.
 崔鶴根(1980), 알타이 語學論攷, 玄文社.
 洪起文(1934) 「數詞의 諸形態研究」, 조선일보學藝, 1934.4.8~1934.4.17.
 Greenberg, J.H. (1978) Generalization about Numeral Systems.Universals of human language. Stanford Univ. Press.
 Meillet, Antoine(1924), The Comparative method in historical linguistic (1967).
 Ramstedt, G.J.(1939) A Korean Grammar.